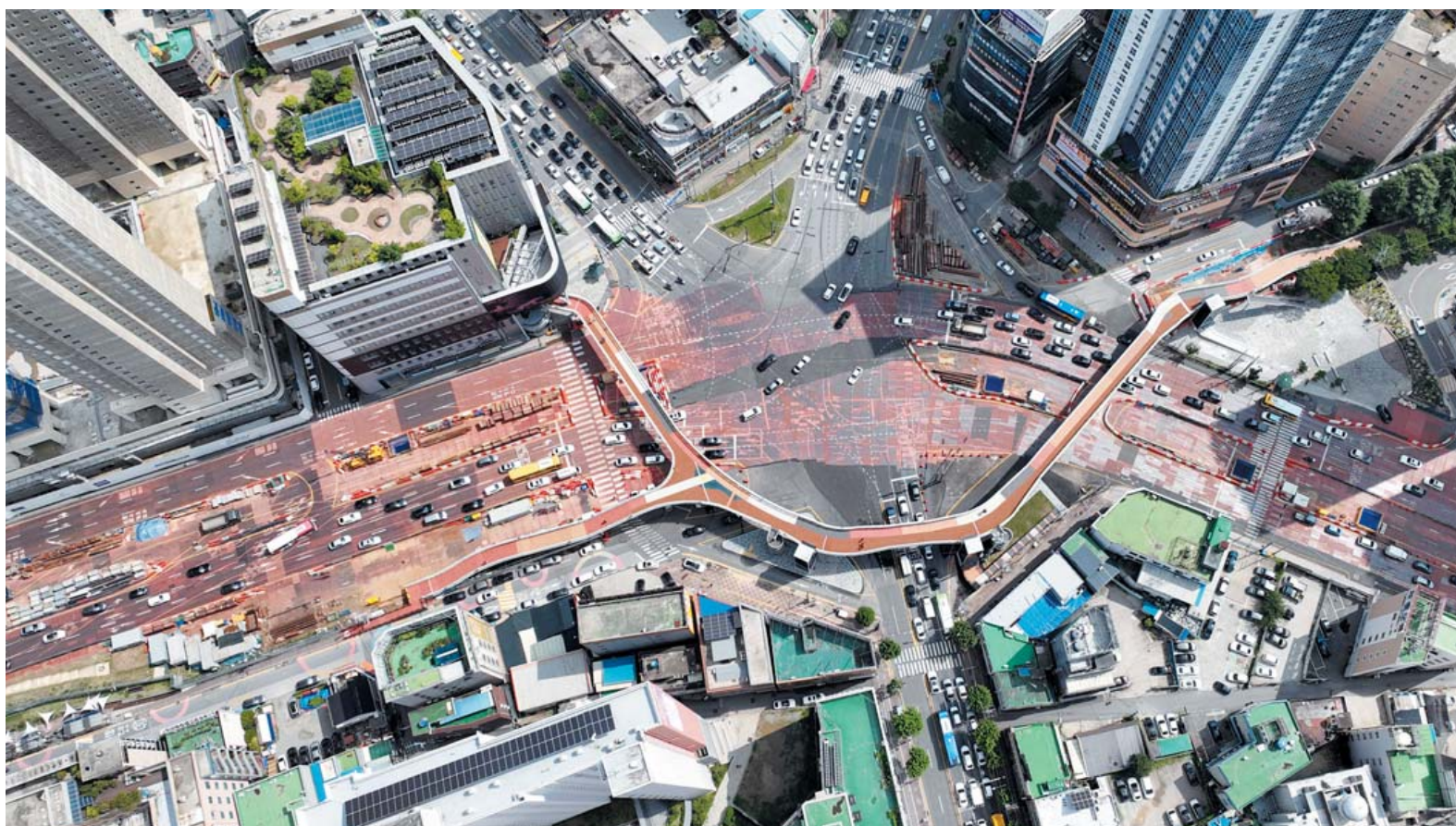




588억 투입 '백운광장 지하차도' 내년 6월 개통 '순항'

공정률 55%...965m 양방향 2차로
개통시 교통 흐름 획기적 개선 전망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 맞물려
1년간 차선변경·체증 등 불편 불가피



공사가 한창인 백운광장 광주 남구청 앞 대남대로 선형개량공사인 백운광장 지하차도 공사가 55%의 공정률을 보이며 2025년 6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사진은 3월 도시철도 2호선과 지하차도 공사가 맞물려 진행중인 백운광장 일원. /김예리 기자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백운광장 지하차도'가 공정률 55%를 기록하며 내년 6월 개통을 목표로 순항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는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대 도로에서의 잦은 차선변경과 교통 체증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남구청 앞 대남대로 선형 개량 공사인 '백운광장 지하차도' (백운광장-주월교차로 965m 구간, 최저점 13m) 공사에는 총 588억원 (국비 136억5천만원, 시비 451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백운고교 철거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백운광장 지하차도는 남구청 앞 백운고교의 급경사 급커브로 발생하는 잦은 교통사고와 교통 체증을 도로 구조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55%다. 광주시는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준공과 동시에 곧바로 개통할 계획이다. 당초 광주시는 2015년 기본·실시 설계 과정에서 사업비와 지하공간, 교통량 등을 감안,

조선대에서 농성광장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추진을 결정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2020년 9월과 2021년 3월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2차례 간담회를 통

해 한 방향으로만 통행할 경우 운전자들이 생소한 환경 때문에 사고 위험이 커지는 것은 물론, 반대 방향의 교통 체증이 발생할 수 있다며 양

방향 지하차도 건설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2021년 7월 20일 교통, 도로, 터널, 방재 분야 전문가, 광주경찰청이 참여

하는 자문회의를 통해 양 방향 운행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같은 해 10월 5일 왕복 2차로 (편도 1차선)로 사업 계획을 변경했다. 2022년 1월 휴막이 가시성 및 복공판 설치를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까지 10차례의 설명회를 거쳐 보완 설계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광주시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집중호우 등 빗물로 인한 상습 침수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펌프 (2대)를 설계 기준보다 1.5배 (3대) 정도 높게 반영했고 강우 강도도 당초 계획인 50년 빈도 (시간당 210mm)에서 200년 빈도 (시간당 248mm)로 설계했다. 다만, 백운광장 지하차도가 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어 개통 전인 2025년까지 차선 변경, 교통 체증에 따른 시민 불편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석용 광주시 교통국장은 "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병행되는 만큼 공사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2025년 상반기 공사 마무리를 목표로 최선을 다해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백운광장은 광주와 나주-목포를 잇는 관문이자 지역 5개 간선도로 교통 흐름에 영향을 주는 교차로로 2020년 11월 27일 숙원사업이었던 백운고교를 철거하고 광장 주변에 11개 차로를 개통하면 서 교통 흐름이 일부 개선되기도 했다. /박성강 기자

"폭염 피해 막아라" 전남도, 행정력 집중

TF팀·소방 비상연락 등 특별 상황관리
취약층 보호·노년층 피해 예방 총력
전남도가 최근 기상청에서 올해 여름 폭염일수와 강도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도민 폭염 피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5월 20일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상황관리반, 건강관리지원반 등 3개 반으로 구성된 폭염 대응 TF팀을 운영하고 있다. 또 소방본부, 기상청 등 유관기관과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특별 상황 관리에 돌입했다.

특히 3대 폭염 취약 분야인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보호 ▲공사장 등 현장 근로자 안전관리 강화 ▲노년층 농업 종사자 피해 예방 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무더위쉼터 시설별 관리책임제 지속 운영과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냉방비 추가 상환 지원, 폭염특보에 따른 공사 일시 정지·계약기간 연장 제도 적극 추진, 야외 근로자 폭염 행동 요령 홍보와 집중 점검에 나선다. 특보 발령 시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집중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무리한 작업 방지를 위해 마을 방송을 통한 폭염 상황·행동 요령을 실시간으로 전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보호 대책으로 마을 단

위 무더위쉼터 8천512개소를 운영한다. 전남도는 ▲안전 분야 폭염저감시설 설치 지원 등 21억원 ▲수산 분야 김 육상채묘 및 냉동망 시설 등 271억원 ▲축산 분야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등 130억원 ▲농업 분야 과수 생산 시설 현대화 등 1천712억원 ▲산림 분야 도시숲 조성 등 151억원 등을 투입해 폭염 피해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주요 분야별 사업도 추진한다. 이정국 전남도 자연재난과장은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이 여름을 잘 이겨내도록 시·군,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올해 여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빈틈없는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50만명 돌파

모집 1년10개월만에...광주·경기·서울順
민선 8기 전남도가 지역 발전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중점 추진 중인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가 목표 100만명의 절반인 50만명 달성에 성공했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가입자 수는 50만429명으로 집계됐다. 전남도가 2022년 9월 8일 모집을 시작한 이후 1년10개월만의 성과다. 앞서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가입자는 지난해 5월 30만명에 이어, 같은 해 9월 40만명을 돌파한 바 있다.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는 저출산·고령화·인구 유출 등 지방소멸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관계인구 확대를 위해 추진됐다.

지역 별로 광주 가입자가 16만5천10명 (32.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경기 9만4천236명 (18.8%), 서울 7만9천679명 (15.9%), 경남 2만3천738명 (4.7%), 전북 2만2천629명 (4.5%), 부산 2만2천300명 (4.4%) 등 지역별로 고루 분포됐다. 해외 가입자 수는 255명이다. /양사연 기자

Today

- 구호만 '으뜸호남' 구령친화도시무관심 6면
- 푸드탐방-무등산권역 로컬음식 12면
- '뜨거운 팬심' 전반기 1위 KIA 흥행도 1위 16면

광주매일신문 에너지 절약 실천 연중캠페인

가정에서

지구를 살리는 에센스
당신의 에너지 센스!

에어컨 온도 1도 ↑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 : 26도)
₩ 2,138원

고효율 조명 사용하고
안쓰는 조명 끄기
₩ 4,693원

안쓰는 제품
플러그 뽑기
₩ 1,668원

샤워시간 1분 ↓
₩ 1,333원

샤워 중 물 잠그기(비누칠 등)
₩ 4,000원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
₩ 5,631원

대중교통 이용
₩ 69,010원

1등급 전기차 타기
₩ 68,672원

1등급 타이어 사용
₩ 14,018원

적정 공기압 유지
₩ 5,077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에너지개발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연구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새마을운동중앙회
 에너지시미연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한국소비자연맹협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